

지역 소식통

치맥특화거리 조성
입점업소 모집(지원) 안내
 ● 치맥특화거리 조성으로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

● 조성구간: 서부정류장 ↔ 부안중학교 / 양곡구간
 ● 지원금액: 업소당 2천만원(군비)
 ● 지원대상: 기존 업주에 유망 업종 또는 신규 창업자
 ●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부안여 아닌 자
 ● 지원내용: 입점업소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등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치맥점포(점업 음식점 포함) 시설 개보수
 ● 점포내 인테리어 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 시설 장비 등
 (기존 건물 매입비, 건물 일차료는 제외)
 ● 영입장 시설 기준
 ● 치맥 판매점포 면적 33㎡(10평) 이상 권장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 기준 준수

● 문의처: 부안군청 관광체육과 육산관리팀(☎063-580-4392)

부안군, 치맥특화거리 입점업소 신청 접수

부안군은 경기불황 등으로 갈수록 침체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하려고 관내 참깨 등 육가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치맥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입점 업소 신청을 받는다.

조성구간은 서부정류장에서 부안중학교 구간으로 지난해 5월 1호 집 치맥 1번지가 오픈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입점업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에는 인테리어 및 음식조리·판매 시설·장비 기자재에 대해 군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참깨에서는 입점하는 업소에 대리점 출고가격으로 닭 공급과 함께 앞으로 레시피 개발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서, 치매노인·지적장애인 실종 예방 '사전 지문 등록' 실시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18세 미만 아동 및 치매노인·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고 '찾아가는 사전 지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지문 등록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경찰서 시스템에 아동 등의 사진, 지문,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있다.

사전 지문 등록을 희망하는 사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방문 시설이 정해지면 경찰과 등록사업자가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사전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서는 사설의 '사전 지문등록'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스마트 앱(안드로이드) 인터넷 안전 드림 사이트(www.safe182.gok.kr)를 통해 신청·등록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누에타운 전문기획전

‘변산반도 부안의 곤충전시회’

내일부터 31일까지 개최

부안누에타운이 제8회 전문기획전 '세계 속 변산반도 부안의 곤충 전시회'를 내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0년 부안누에타운 개장 후 8번째 전문기획전으로 부안군 새만금 국제협력과 손민우 박사가 지난 20여 년간 부안 변산반도에서 수집한 곤충 24종을 선별해 생생한 접사사진과 함께 표본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곤충을 50mm 마이크로 접사 렌즈에 담아 클로즈업된 생태접사 사진은 곤충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디자인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시용 곤충표본 액자제작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이 있는 손민우 박사의 접사기술을 모두 접목해 디오라마식 독창적 전시기법으로 전시객자를 제작해 곤충표본이 살아 움직이듯 전시된 특징이 있다.

부안군에 속해 있는 변산반도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예로부터 풍부한 곳이다. 어린아이에게 인기가 높은 장수풍뎅이는 한 때 멸종위기에 처했으나 변산의 잘 보존된 풍부한 산림은 그들을 복원시켜줬다. 전시에서는 금속성 광택을 지닌 홍단 딱정벌레 대형 종과 비단처럼 고운 길앞잡이, 팔랑네이과에서 제일 화려한 푸른큰수리팔랑네이,

영화 '에어리언'처럼 곤충을 산 채로 잡아다 마취시켜 놓고 자신을 알을 낳아 기르는 홍다리조롱박벌, 2억 5000만 년 전부터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다 불리는 원시곤충 참 말들이 등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부안누에타운 입장료는 일반 3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00원으로 각종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마을기업 '자연가' 쌀 가공품

‘아로니아 현미과자’ 미국서 ‘인기몰이’

매월 1톤 이상 연간 1억여원 수출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국 확대키로

정읍 감곡면 소재 마을기업인 '자연가(대표 김지운)'의 쌀 가공품이 미국에 수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연가에 따르면 대표적인 쌀 가공식품인 '아로니아 현미과자'가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이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지속적인 수출이 성사됐다. 수출 규모는 매월 1톤 이상의 물량 연간 1억여원이다.

'자연가'는 미국 수출을 계기로 중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흡소포 등 유통 통로를 다변화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로니아 현미과자는 현재 롯데백화점 등 30여 곳에 납품되고 있다. 정읍의 깨끗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데다 최근의 힐링푸드 선호 트렌드와 맞물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지운 대표는 "앞으로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 연간 100여톤 이상을 원료로 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맞춤형 생산방식 기업 운영, 농촌과 도시의 협력과 기여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해나겠다"고 밝혔다.

"자연가"는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발굴·육성된 기업으로 2013년 행정 인준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로니아 현미과자, 아로니아 떡갈비, 삼유선식 등 총 10종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원이다. 자연가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취약 계층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마을기업에서 수출길을 여는 것은 찾아 보기 힘든데 이번 자연가의 수출 성공은 해당 기업은 물론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큰 성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보건소,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 보건소가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지역사회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6개 시범마을 140여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쯔쯔가무시증 지역사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원광대 오경재 교수가 총괄해 쯔쯔가무시증 감염 우려가 높은 농촌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이 지역실정에 맞게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진행은 교육 전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이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3개월 후에는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환자발생 여부

등을 평가해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려면 작업 전 긴 옷에 토시, 목수건,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과 작업 중에는 풀밭에 옷을 벗어 놓거나 앉지 않기, 작업 후에는 즉시 농작업복 세탁하기, 즉시 비누 목욕을 하는 등 예방 실천이 필요하다"며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쯔쯔가무시증 예방교육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업 후나 야외활동 후에 두통, 고열, 오한 등을 동반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진드기에 물린 상처, 피부발진, 급성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응급처치·심폐 소생술 교육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7일 응급처치와 심폐 소생술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 광역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지역행복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 대상은 보건소 의료 지원반으로 편성돼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전북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오숙희 교수 등 2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응급처치와 심폐 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교육을 마네킨 애니를 이용한 심폐 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가졌다. 보건소는 이후에도 마을 이장 중심

의 '생활안전 도우미 양성'과 전문적인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중심의 BLS Prover 양성을 위해 지역별 담당 교수진과 함께 시·군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기관인 정읍 이산병원을 거점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긴박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

김생기 시장은 "탄탄하고 빈틈 없는 서남부권 응급의료 진료 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을 사수,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복지시설 LED교체사업 추진 완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복지시설의 노후 된 조명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복지시설을 더욱 밝고 쾌한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지난 28일 전했다.

군은 지난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와의 협약을 맺고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등을 LED등으로 무상교체 완료했다.

LED등은 기존 조명기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은

과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조명기구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300여 가구 및 경로당 26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총 사업비 7억39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안전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안전진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LED등 교체로 인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관리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LED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94-8990
 www.ganganwine.com